

종로는 정통야당의 맥을 이어온 한국정치자존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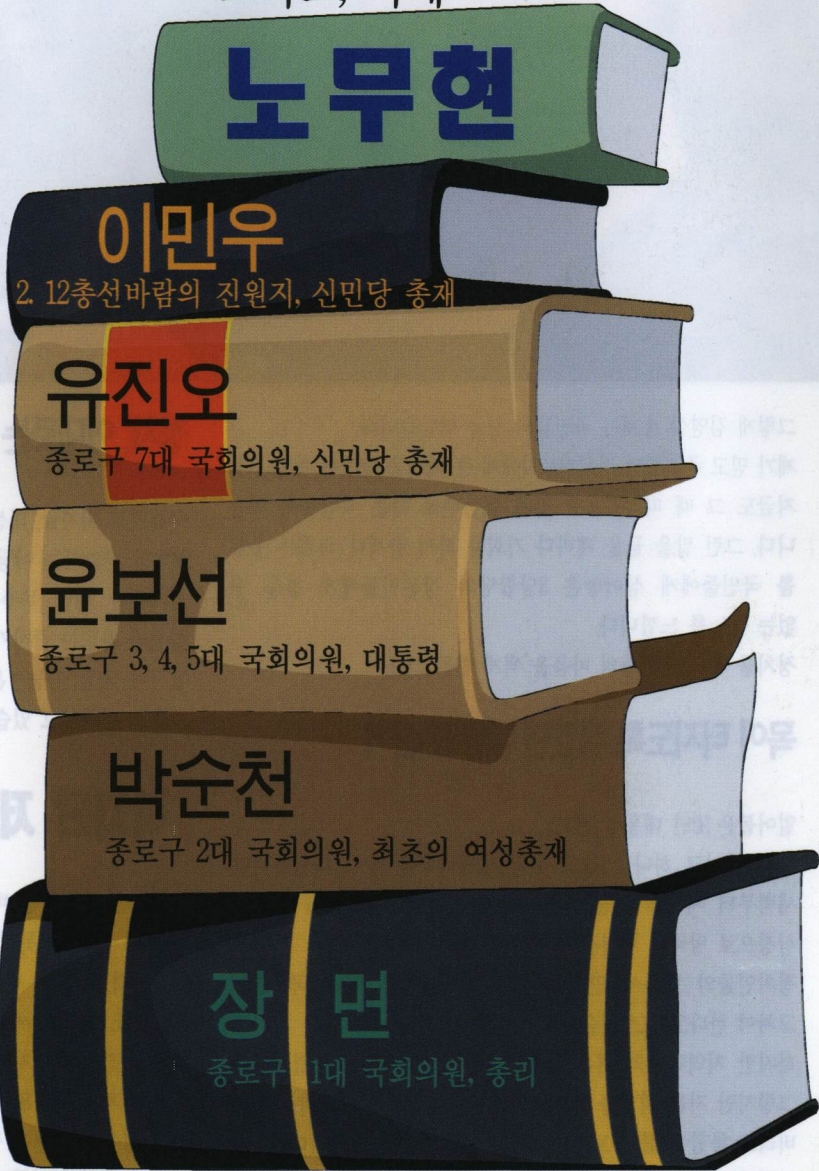
그리고, 이제

노무현



노무현이 걸어온 길

- 46년생(49세)
- 부산상고 졸업 • 제17회 사법고시 합격
- 대전 지방법원 판사
- 공해문제연구소 이사
- 민주쟁취 부산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87년 6월항쟁)
- 13대 국회의원
- 국회 5공비리 조사특위위원 (청문회)
- 민주당 기획조정실장 • 대변인
- 민주당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14대 대통령 선거)
- 민주당 최고위원, 부총재
- (현)사단법인 지방자치 실무연구소 이사장
- (현)민주당 종로지구당 위원장



이민우

2. 12총선바람의 진원지, 신민당 총재

유진오

종로구 7대 국회의원, 신민당 총재

윤보선

종로구 3, 4, 5대 국회의원, 대통령

박순천

종로구 2대 국회의원, 최초의 여성총재

장면

종로구 1대 국회의원, 총리

진실한 사람

3 노무현

선거사무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47 보신빌딩 501호
(종각 맞은 편 제일은행 옆)
전화 · 737-2772 / FAX · 723-8370
Hitel · Go mass / 전리안 · Go mass
Internet · <http://sol.nuri.net/~my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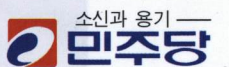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 옛말에 집안이 잘되려면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3 노무현



걸어온 길을 보면 걸어갈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아픔을 보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찌그러진 필통 하나...

우리 또래 사람들이면 모두 그랬듯이 저의 어린시절도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사친회비를 못내 몇번이나 학교에서 쫓겨오던 그 길에서 찌그러진 필통이 전부인 나의 가난을 보았습니다.

자취, 가정교사, 회사기숙사로 전전하며 지내던 고교시절, 교실에서 이들을 지새고 추위를 이기려고 얼마나 이를 악물었던지가 아파 밥을 먹을 수 없었을때 저는 너무 서러워 이 지긋지긋한 고생과 서러움을 이겨내고, 꼭 출세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사법고시에 도전해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보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모두 알아주고 굽실거리며 나를 받들었습니다.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겠다던 어린시절의 꿈은 차츰 잊어버리고 저는 살맛나는 세상에 조금씩 빠져들었습니다.

작은 농장도 갖고 싶었고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우리부부의 한을 풀고자 자식들은 외국유학까지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인권변호사로, 국회의원으로...

그러던 어느날.

저는 내 삶을 온통 뒤바꾸어 놓은 한 사건을 만났습니다.

81년 5공 정권이 양심적인 청년학생들을 온갖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여 5년, 7년씩 감옥에 넣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았던지 온몸에 멍이 들고 발톱이 새까맣게 죽어버린 청년들. 그들을 찾아 미친 듯이 헤매고 다닌 어머니들.

누가, 왜 이들을 짓밟았는지...

가난했던 어린시절의 결심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 인권변호사로 재야운동가로 고단한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구속에 이어 변호사 업무정지까지 당한 후 13대 총선에 출마를 권유받고 5공의 주역 허삼수씨에게 도전장을 내고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90년 1월, 그 춥고 외로웠던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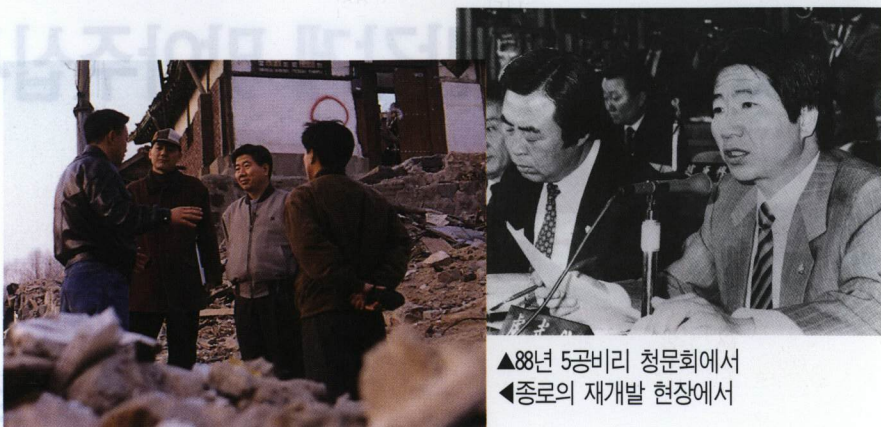
90년 1월, 기가 막힌 3당합당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아침에 야당을 하다가 여당으로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에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서는 내 눈 앞에도 금뱃지가 어른거렸고 차라리 정치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들도 주마등 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 곁에는 금뱃지 보다 더 소중한 국민들의 아픔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어느날, 부산 시내에서 십여대의 경찰차 호위를 받으며 질주하는 김영삼 총재의 행차를 보았습니다.



▲88년 5공비리 청문회에서
◀종로의 재개발 현장에서



그렇게 김영삼 총재는 국민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제가 믿고 존경했던 정치지도자에게 큰 배신을 당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때 따라갔으면 장관 했을텐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회를 봐서 출세나 하자는 풍토를 국민들에게 심어놓은 3당합당의 장본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정치를 떠나 국민들의 마음을 썩게 만든 그들...

목이 터지도록 뛰었던 대통령 선거

얼어붙은 92년 대통령 선거.

저는 마이크 하나만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 다녔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 진눈개비 내리는 늦은 밤까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망국적 지역감정을 극복하자고 외쳤습니다.

정치인들의 탐욕이 만들어 놓은 지역감정을 이제 국민들이 고쳐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감정의 벽은 높았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눈앞의 이익을 버리고 통합을 했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또 분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은 시점에서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만든 통합야당인데 분열이라니...

저는 이나라 정치지도자에게 또 한번의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정치, 이대로는 안됩니다

수천억의 비자금, 대선자금을 한푼도 안받았다는 대통령, 20억만 받았다는 야당총재가 있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부추기는 지역감정, 국민의 뜻보다는 보스의 결정에 따르는 졸서기 정치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정치가 바뀔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낼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책정당, 비전있는 정당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정치풍토 속에서는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보따리 싸기만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정책이 나오고 무슨 비전이 세워지겠습니까?

이제 정치풍토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저의 정책과 비전은 정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나라의 심장, 정치 1번지 종로에 도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당당히 맞서왔던 힘으로,

이제 종로에 몸을 던집니다.

먼저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종로가 바뀌면 한국정치가 바뀝니다.